

도시텃밭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른 공동체 형성 효과

이차희 ·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The Study on Community Formation Effect from Urban Garden Management by Different Operators

Lee, Cha-Hee · Son, Yong-Hoon*

Ph.D.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ffect in how urban garden is run by different operators in Korea, and consequently how it determines the level of community formation among urban garden user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some points as to how to better manage urban garden. The operator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public,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 The study interviewed each operating entity and surveyed garden users to gauge the extent to which communities are developed. After the ANOVA analysis and Scheffé post-hoc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evels of community formation among users of public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urban gardens were similar (so can be grouped together), whereas that of private urban garden users was higher (separated as another group). However, this study found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ommunity formation among all types of urban garden in a local community. Some key suggestions are made as a result. First, as for the public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types of urban garden, it is necessary to foster leaders to build a community. Next, it is worth noting the potential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realizing community revival through urban garden. The last suggestion is that, generally, the urban garden has only little influence on community formation in a local area so far, thus more practical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enhance the role of urban garden in a local community.

Key words : Urban garden, Operating entity, Management system, Community formation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의 공동체 붕괴 문제가 도시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1994년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도시주변의 주말농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에는 1,000㎡ 미만에 한정하여 도시주민의 텃밭용 농지소유를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텃밭농원을 개설하고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11월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 11월에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미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¹⁾ 한편, 전국귀농운동본부(2005),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2007), 서울그린트러스트(2009) 등의 시민단체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간의 파트너십이 새로운 운영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의 다원화는 기존 도시근교의 주말농장 형태로 존재하던 도시농업이 도시 내의 도시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등 공간 및 형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Corresponding author. Son, Yong-Hoon

Tel : 02-880-8107

E-mail : sonyh@snu.ac.kr

이끌어내고 도시텃밭이 생활밀착형 녹지로 자리 잡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도시텃밭은 먹거리 생산, 지역의 자발적 녹지형성, 새로운 여가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대한 주요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게 된다. 안철환(2006)은 도시텃밭을 ‘텃밭공동체’로 언급하며 텃밭이 도시의 공동체 문화를 퍼뜨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임미정·이은희(2011)는 도시텃밭 이용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도시 내에서 텃밭이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화합의 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텃밭은 이용자들의 텃밭 활동을 통해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시텃밭의 중요한 효과 중 하나로 공동체 형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도시텃밭은 운영주체별로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방식의 차이는 도시텃밭 이용자들의 공동체 형성에 서로 다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도시텃밭에 관한 연구범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도시 외곽의 주말농장형태에 관한 연구(이은희·김용아, 1998; 신성규 외, 2001; 유찬주·장동현, 2002; 허승수, 2006 등)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내 텃밭형태(임정연, 2009; 황지욱, 2010; 김미향, 2011; 박은지 외, 2012)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도시텃밭의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 형성(노희영, 2012; 박태호, 2012; 임미정·이은희, 2011)과 운영·관리(소현정, 2008)에 관한 연구도 최근에는 주목받고 있다. 소현정(2008)은 도시농업의 주요 운영자가 되는 정부(지방정부)와 시민,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도시농업을 대중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운영자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과 행정력, 시민단체의 정보와 인력, 시민들의 참여의지 등의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임미정·이은희(2011)는 도시텃밭이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텃밭을 조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휴게 및 교류공간에 대한 계획과 지역민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박태호·이인성(2012)은 서울시 3개 도시텃밭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도시텃밭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국내의 다양한 운영주체별 도시텃밭 운영방식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른 운영방식이 텃밭 이용자들의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도시텃밭이 보다 활성화되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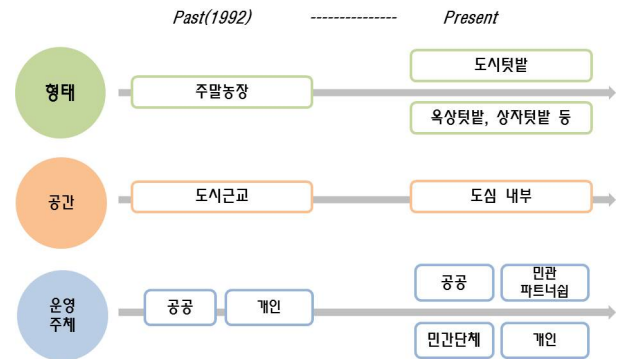


Figure 1. 국내 도시농업 변화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다양한 운영주체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도시텃밭으로 하였다. 또한, 도시텃밭의 운영주체를 공공, 민·관파트너십, 민간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선정한 기준으로 ‘도시농업 시작년도’, ‘자료조사 유무’, ‘공공성 및 활동성에 대한 시사점’ 등을 주된 관점으로 하여 대표성을 띠는 운영주체를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선정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텃밭 대상지³⁾를 ‘규모’, ‘운영기간’, ‘접근성’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적인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를 통해 운영주체별 도시농업의 운영방식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공동체 형성 측정요소를 선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이 텃밭 이용자들의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운영주체별 장·단점·한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able 1. 인터뷰 및 설문날짜

운영주체별		대상지	인터뷰		설문 날짜
			대상	날짜	
공공	서울 특별시 농업기술 센터	토끼굴 텃밭농원 (600구좌)	센터 담당자, 토끼굴 농장주	‘11.12.01 ‘11.10.24	‘11.10.15
		무수굴 텃밭농원 (900구좌)	무수굴 농장주	‘11.10.15	
민·관 파트너 네트워크	구청+ 시민단체	송파구+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송파 솔이텃밭 (280구좌)	서울그린 트러스트 담당자, 송파구 담당자	‘11.10.13 ‘11.10.21 ‘11.12.01	‘11.10.15 ‘11.10.16
		강동구+ 텃밭보급소의 둔촌동 친환경텃밭 (250구좌)	텃밭 보급소 담당자, 강동구 담당자	‘11.10.16 ‘11.10.21 ‘11.12.02	
민간	텃밭 보급소	안산 바람들이 농장(150구좌)	농장 담당자	‘11.12.02	‘11.10.22 ‘11.10.29
		군포 개울건너밭 (100구좌)	농장 담당자	‘11.11.05 ‘11.11.08	

2. 연구방법

운영주체별 운영자들의 인터뷰에 앞서 현장조사(2011.09.10) 및 운영자 사전면담(2011.09.17.-18)을 실시하여 [Table 2]의 인터뷰 항목을 작성하였다. 텃밭 이용자들의 공동체 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⁴⁾를 고찰하여 설문항목을 작성하였다. 조사항목은 3가지로 ‘텃밭 내 공동체 활동’, ‘텃밭 내 공동체 의식’, ‘지역 내 공동체 형성’으로 각 항목과 이에 따른 하부 항목으로 [Table 3]과 같이 총 2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5), 전혀 아니다(1)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설문 전체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과 운영주체별 텃밭 이용자 공동체 형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ANOVA분석을 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정법을 사용하여 운영주체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 내용을 알아보았다. 통계분석은 SPSS 18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Table 2. 운영주체별 인터뷰 항목

분류		세부요소	
조성	일반	전체규모, 1구좌당 면적, 분양비용, 분양시기 및 기간, 모집대상	
	방식	추진절차 및 부지매입	
	시설	규모 및 공간구조, 동선체계, 생산·관개·편의·커뮤니티·쓰레기처리·퇴비·기자재거치시설, 산책로, 장애우·공동텃밭	
운영	원칙	가치 및 규범	설정 및 공유방식
		증장기 계획	-
	재정	운영비용	-
		재원조달 방식	외부지원금의 의존도, 후원제도(기업, 개인)
	조직	체계	인적구성(전문,행정,관리,상주), 역할 및 관리범위, 협력단체와의 관계 설정
		전문성	경험, 기획 및 능동적 프로그램 구상, 업무분장 및 기간, 교류협력, 자체교육 여부
공공성		텃밭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사업*	
공동체형성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 유무	
	교류 및 정보전달	정기모임 유무, 정보공유방식	
	공동 활동	-	
	문제 및 해결방식	자체평가 및 자치조직 활동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수확물을 지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

Table 3. 공동체 형성정도 설문조사 항목

분류	설문항목
텃밭 내 공동체 활동 (14)	·음식물, 소변 등을 퇴비화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농약사용을 안하고 있다.
	·공동퇴비관리에 동참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동텃밭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동텃밭 작업에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시설 및 서비스 불편에 대한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텃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등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텃밭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분류	설문항목
텃밭 내 공동체 의식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텃밭활동을 하면서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 · 텃밭 이용자 간에 텃밭에서 대화를 한다. · 텃밭 이용자 간에 온라인에서 대화를 한다. · 텃밭 활동에 만족한다. · 텃밭 이용자 간의 관계에 만족한다. · 텃밭 이용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 · 텃밭 이용자 간의 가치공유를 하고 있다. · 텃밭 이용자 간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 공동의 목적과 규범이 있다.
지역 내 공동체 형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텃밭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주거환경에 만족도가 높아졌다. · 텃밭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거주지역 이웃과 대화, 만남이 늘어났다. · 텃밭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거주지역에서 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텃밭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거주지역에서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III. 결과 및 고찰

1. 도시텃밭 운영주체별 운영방식 비교분석

가. 조성 측면

토끼굴·무수굴(공공), 솔이텃밭·둔촌동 친환경텃밭(민·관파트너십),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 모두 텃밭 분양 기간이 1년으로 동일하며, 모집방식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접수를 하고 있었다.

모두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지의 확보방법에 있어서는 토끼굴·무수굴(공공)은 농장주 소유의 땅을, 솔이텃밭·둔촌동 친환경텃밭(이하 솔이·둔촌동, 민·관파트너십)은 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한 땅을,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은 기부 받은 땅을 사용하고 있었다. 분양금액은 텃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민·관파트너십이 가장 저렴했다.

모집방식에서 토끼굴·무수굴(공공),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의 경우 주로 기존 단체 회원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져 비록 모집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었다.⁵⁾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의 이용자는 그들의 참여 속에 공동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접근성과 규모면에 있어 토끼굴·무수굴(공공)과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시설

면에서는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이 교육장소, 공동작업 시설, 생태뒷간, 퇴비통 등의 다양성을 보였다.

Table 4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의 개요

구분	공공		민·관파트너십		민간	
	토끼굴	무수굴	솔이 텃밭	둔촌동 친환경 텃밭	바람들이	개울건너밭
개설년도	2003년	2004년	2009년	2010년	2003년	2003년
위치	강동구 암사동 603-5	도봉구 도봉1동 469번지 외	송파구 오금동 96-14, 97-5 번지	강동구 둔촌동 118-1 일대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262-1	경기도 군포시 숙달동 211
전체 규모	11,514㎡	16,510㎡	4,770㎡	6,411㎡	4,600㎡	2,500㎡
부지 확보	농장주 소유	농장주 소유	임대차 형식	임대차 형식	개인 기부	개인 기부
접근성*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불량	불량
분양면적	12㎡	13.2㎡	16.2㎡	16.9㎡	16.5㎡	16.5㎡
분양기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분양비용	10만원	10만원	6만원	5만원	7만 5천원	7만 5천원
모집대상	서울 시민	서울 시민	구민	구민	공식적으로는 제한없으나 회원 중심	공식적으로는 제한없으나 회원 중심
모집방식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구신문	인터넷+구신문	협력 단체 인터넷+도시농부 학교	협력 단체 인터넷+도시농부 학교
시설	편의, 휴게 시설	편의, 휴게 시설	편의, 휴게, 교육 시설	편의, 휴게, 교육 시설, 장애우 텃밭	편의, 휴게, 교육, 생태, 공동작업 시설	편의, 휴게, 교육, 생태, 공동작업 시설

*공공과 민관파트너십의 텃밭은 아파트인근에 위치해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함

나. 운영방식 측면

운영형태는 Figure 2와 같다. 토끼굴·무수굴(공공)은 간접운영형태를 취하고 있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농장주, 텃밭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체 간의 역할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텃밭 이용자에게 우수텃밭의 홍보 및 분양 정보를 제공해 주고 농장주에게는 친환경 농사교육과 시설지원을 해준다. 텃밭 이용자는 농장주에게 텃밭 분양신청과 분양비를 납부하고 텃밭 이용 시 문의 및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 토지소유자인 농장주는 텃밭 이용자에

게 텃밭을 분양해 주고 농작물 재배 시 필요한 농사기술을 알려주고, 밭갈이, 퇴비, 종자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의 두 사례는 모두 민간단체와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있지만 운영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송파구와 서울그린트러스트(이하 SGT)가 운영하는 솔이텃밭은 간접운영형태이다. 솔이텃밭은 송파구청, SGT, 텃밭 이용자,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체 간의 역할을 보면 송파구는 텃밭 이용자에게 텃밭 분양에 대한 홍보 등의 대외업무를 실시하며, 또한 SGT에 필요한 자금, 시설, 관리인력(공공근로)을 지원하고 있다. SGT는 텃밭 이용자와 텃밭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텃밭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토지소유자와 1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반적인 텃밭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텃밭 이용자는 송파구청에 텃밭 분양신청 및 비용을 납부하고 텃밭 이용 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한다.

이와 달리 강동구와 텃밭보급소가 운영하는 둔촌동 친환경텃밭은 강동구청에 의한 직접운영형태를 취하고 있다. 둔촌동 친환경텃밭은 강동구청, 텃밭보급소, 텃밭 이용자,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체 간의 역할을 보면 강동구청은 토지소유자와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텃밭 이용자에게 텃밭분양에 관한 홍보를 한다. 텃밭보급소는 텃밭 이용자에게 주1회 멘토 역할과 텃밭 내 농부학교 교육을 담당하면서 강동구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을 지급받는다. 텃밭 이용자는 강동구청에게 텃밭 분양신청 및 비용을 납부하고 텃밭 이용 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한다.

바람들이·개울 건너밭(민간)은 텃밭보급소, 텃밭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체 간의 역할을 보면 농장주는 토지소유자면서 텃밭보급소 회원으로 활동하며 텃밭 이용자에게 텃밭을 분양해주고 농작물 재배 시 필요한 농사기술을 알려준다. 텃밭 이용자는 텃밭보급소에 텃밭 분양신청과 분양비를 납부하고 텃밭 이용 시 문의 및 개선사항을 요구한다.

아래 Table 5와 같이 원칙에 있어서 토끼굴·무수골(공공),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의 운영자들은 가치 및 목표 공유 방식이 소극적이며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토끼굴·무수골(공공)의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법을 권장하고 있으나, 농장주는 텃밭 이용자의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은 구청과 시민단체가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으나 이는 초기에만 목표로 공시되며 강조될 뿐 지속적으로 공유되지는

못하였다. 이와 달리 민간은 텃밭 내 공동퇴비 활동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가치 및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

재정에 있어서 토끼굴·무수골(공공)의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시로부터 매년 지원받아 우수농장의 시설지원 및 농장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외 별도의 외부자금 조달은 없으며 농장주는 분양비용만으로 텃밭을 운영한다. 송파구와 SGT의 솔이텃밭(민·관파트너십)은 관과 민이 위탁용역을 체결하면서 매년 3천만원의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외 운영비용은 분양비용, 사회적 기업인 그린플러스의 기업후원금과 협력단체들의 현물 후원, 활동 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충당되고 있었다. 강동구와 텃밭보급소의 둔촌동 친환경텃밭(민·관파트너십)은 분양비용과 강동구의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바람들이·개울 건너밭(민간)의 경우, 분양비용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분양비용의 10%는 텃밭보급소 후원비로 사용된다.

조직에 있어서 토끼굴·무수골(공공)의 경우,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팀이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우수텃밭인 ‘친환경 텃밭농원’ 약 20개(토끼굴, 무수골 포함)는 1명의 주무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농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무관은 연 2회 농장주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 및 병해충 교육, 우수텃밭 선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소한의 관리·감독역할을 한다. 농장주는 텃밭 운영시간 내 텃밭에 상주하면서 농장과 텃밭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농장주는 다년간의 농사경험이 있었다.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와 농장주는 미약한 수직관계를 형성하였다. 농업기술센터가 우수텃밭 선정을 통해 시설지원 여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농장주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여한다. 하지만 텃밭 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 창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농장주는 텃밭 이용자에게 농장 내 게시판과 문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텃밭 이용자는 현장에서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다. 송파구와 SGT의 솔이텃밭(민·관파트너십)은 송파구청 1명과 SGT의 전문 1명, 그린플러스 관리 1명, 그린플러스 활동 강사 3명, 송파구지원 희망근로 2명으로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송파구청 주무관은 텃밭 위탁용역 체결 등의 행정업무와 텃밭에서 지역 내 봉사 활동 시 송파구 직능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대외적인 업무를 한다. SGT와 그린플러스는 장기적인 텃밭 운영과 프로그램 등을 기획한다. SGT는 지역단체들과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린플러스의 활동 강사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들은 농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부족하였으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로서의 전문성이 있었다. 희망근로자 2명은 텃밭운영시간에 상주하면서 텃밭의 환경미화를 담당한다. 강동구와 텃밭보급소의 둔촌동 친환경텃밭(민·관파트너십)은 강동구청 공무원 2명이 행정과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텃밭보급소에서 파견된 1명은 텃밭 내 멘토 역할(일요일 오후2-6시)과 농부학교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5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텃밭의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었다.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의 운영자간의 관계는 외부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나, 실질적으로는 위탁용역체제로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는 텃밭 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하는데 자율성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바람들이·개울 건너밭(민간)의 경우, 텃밭보급소 텃밭 운영위원(텃밭지기) 1명이 텃밭을 운영·관리한다. 텃밭 운영위원은 오래 전부터 전국귀농운동본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의 유기농법을 교육받았고 농사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텃밭위원은 텃밭 이용자에게 전체 텃밭

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농사지도 및 대화를 이끌면서 텃밭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텃밭 이용자 중 운영위원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텃밭머슴)이 생기면서 인터넷 카페, 소모임, 문자서비스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텃밭위원은 수평적 관계설정을 위해 편한 호칭사용, 잦은 만남, 대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공공성에 있어서 토끼굴·무수굴(공공)과 바람들이·개울 건너밭(민간)의 경우는 텃밭 비이용자를 위한 텃밭 관련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바람들이·개울 건너밭의 경우는 텃밭 이용자와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연계된 단체에 대해서만 텃밭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뿐이다. 반면,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의 경우 솔이텃밭은 텃밭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농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송파구 개인,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다양한 친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둔촌동 친환경텃밭은 강동구청 구민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2-4시에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텃밭에서 수확된 농작물의 일부를 지역 내 사회배려계층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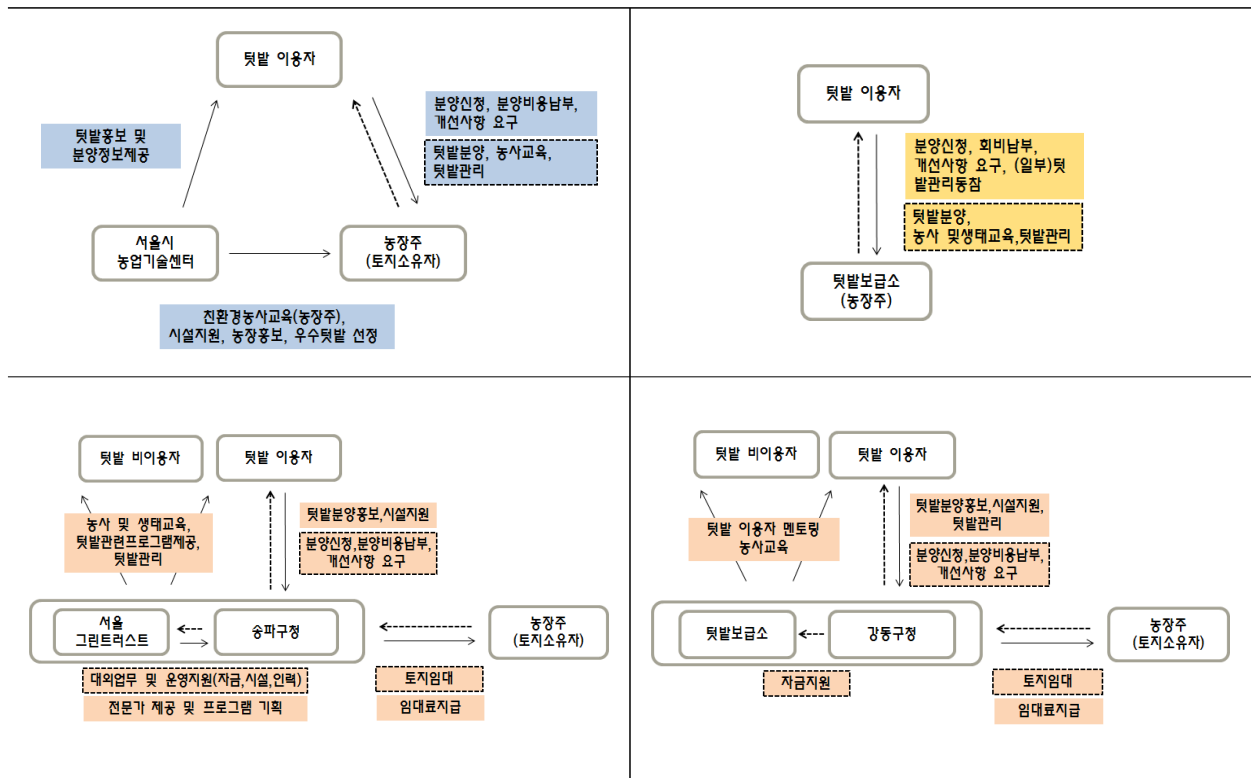


Figure 2. 공공(상단 좌측), 민간(상단 우측), 민·관파트너십_솔이텃밭(하단 좌측), 민·관파트너십_둔촌동 친환경텃밭(하단 우측) 운영형태

Table 5. 운영주체별 운영형태 종합

구분	공공		민·관파트너십		민간
	토끼굴·무수굴		솔이텃밭	둔촌동 친환경텃밭	바람들이·개울건너밭
방식	간접운영		간접운영(위탁)	직접운영(일부위탁)	직접운영
원칙	목표 및 공유 방식	친환경 먹거리 재배	저탄소 녹색도시, 로컬푸드운동 등	여가선용, 노인복지, 공동체형성 등	생태적 생활방식
		구성체 간 목표공유 ‘약’ 온라인게시판	구성체 간 목표공유 ‘약’ 온라인게시판, 분양 시 메일발송 텃밭 내 안내판	좌동	구성체 간 목표공유 ‘강’ 꾸준한 만남과 공동 활동, 온라인게시판
	규범 및 공유 방식	친환경 농법 권장, 농약과 멀칭 사용금지	친환경 농법 권장, 농약과 멀칭 사용금지	좌동	유기농법
		시설지원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게시판, 분양 시 메일발송 텃밭 내 안내판, 규정어 길시 분양권 박탈	좌동	꾸준한 만남과 대화, 공동 활동, 온라인 게시판
증장기 계획	텃밭 내 친환경 농법	지역 내 도시농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민간주도형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내 공동체 형성	
재정	운영 비용 및 조달 방식	분양비용, 서울시 지원	분양비용+위탁용역비용+기업후원금+현물지원(협력회사)+재능기부	분양비용+강동구비	분양비용
조직	인적 구성 및 역할	행정1인-년2회 교육, 우수텃밭 선정 및 홍보, 분양정보제공	행정1인-텃밭홍보 및 지역단체와의 연계 등 대외업무 SGT1인-프로그램 기획, 외부단체와의 연계 그린플러스 관리1인-프로그램 기획, 활동강사3인-프로그램 진행 희망근로 상주관리2인-환경미화	행정2인-행정, 운영 텃밭 보급소1인-주1회 멘토·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희망근로 상주관리1인-환경미화	텃밭위원1인-지도자, 농사법 전달, 프로그램 개발
		농장주-이용자 대상 농사교육, 텃밭서비스 제공(밭갈이, 퇴비, 종자 지급 등)			
	관계	수직관계 ‘약’	수직관계 ‘중’	수직관계 ‘강’	-
	전문성	농사기술 ‘강’	농사기술 ‘중’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강’	농사기술 ‘중’ 멘토 ‘중’	농사기술 ‘강’ 멘토 ‘강’
공공성	약	강	강	약	

다. 공동체 형성측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토끼굴·무수굴(공공)은 텃밭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은 계절별, 계층별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텃밭 비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타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텃밭과 차이가 있었다. 한편,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의 경우 연 2회의 농사교육을 제외하고는 정기적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지만, 텃밭위원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수시로 텃밭소식을 알리고 매주 토, 일요일마다 만나서 필요한 일을 함께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교류 및 정보전달방식에 있어서 토끼굴·무수굴(공공)의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텃밭 이용자에게 우수텃밭에 대한 홍보를 하고 농장에서도 온라인 카페, 문자 등을 통해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반면 솔이텃밭(민·관파트너십)은 송파구청에서 메일, 문자, 도시농업지원센터 게시판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SGT는 ‘랜드쉐어’라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정보전달 및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있었다. 둔촌동 친환경텃밭(민·관파트너십)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동구청이 ‘그리니티’라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단순 정보전달 수준이었다.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의 경우, 텃밭보급소는 ‘가드닝멘토’라는 온라인 카페와 주말 점심 도시락 모임 등의

오프라인 모임이 함께 결합하여 타 운영주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동 활동에 있어서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은 지속적인 관리상의 문제로 공동텃밭, 공동퇴비 등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의 텃밭에서만 텃밭 내 필요한 시설(휴게시설, 화장실, 공동퇴비장 등)을 위해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 및 해결방식과 관련하여, 토끼굴·무수골(공공)의 경우 시설노후와 농약사용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체 간의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의 경우에도 인근 사유지와 접한 부분과 주차장 등에 텃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자주 방치되고 있으나 구성체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의 경우, 텃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퇴비화하고 있고, 휴게시설, 화장실 등의 필요한 시설은 이용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제작하였으며, 농작물의 병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종은 최대한 자제하고 토종 종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신규회원수의 지속 감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Table 6. 운영주체별 공동체 형성

구분	공공	민·관 파트너십	민간
	토끼굴, 무수골	솔이·둔촌동	바람들이, 개울건너밭
프로 그램	-	텃밭 이용자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텃밭 이용자 대상으로 년 2회 농사 교육, 주말 함께 도시락 먹기, 텃밭 내 잔치 등의 비정기적 프로그램
교류 및 정보 전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문자 발송, 온라인카페 운영	구청 홈페이지, 메일 문자발송, 온라인카페 운영	텃밭 내 잦은 만남, 온라인 카페 운영
공동 활동	-	-	·공동텃밭 운영 ·시설물제작 ·소모임
문제 및 해결 방식	·시설노후 및 경관성이 떨어짐 ·농약사용 ·재배작목의 단순	쓰레기 방치	·쓰레기 퇴비화 ·토종종자 사용 ·신규회원수 적음

2. 도시텃밭 운영주체별 공동체 형성 효과 분석

운영주체별로 토끼굴 26명 · 무수골 32명(공공), 솔이 31명 · 둔촌동 37명(민·관파트너십), 바람들이 31명 · 개울건너밭 32명(민간)으로 총18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텃밭이용행태의 분도분석 결과는 [Table 7], [Table 8]과 같다. 텃밭 이용기간은 토끼굴·무수골(공공)과 바람들이·개울건너밭(민간)이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보다 길었다. 텃밭 이동수단은 대부분 자가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토끼굴(공공)과 솔이·둔촌동(민·관파트너십)의 상당수는 도보로도 텃밭까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명)	비율 (%)	항목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109	57.6	주거 형태	아파트	135	73.5
	여자	80	42.3		연립	11	5.8
연령	20세 미만	4	2.1		다가구 다세대	20	10.6
	20대	2	1.1		단독주 택	15	7.9
	30대	32	16.9		기타	4	2.1
	40대	78	41.3		자가	117	61.9
	50대	43	22.8		전세	65	34.4
	60대	23	12.1		월세	4	2.1
	70세 이상	7	3.7		기타	3	1.6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	7.9		거주 지역	서울시	139
	고졸	42	22.2	경기도		48	25.4
	대졸	107	56.6	기타		2	1.1
	대학 원졸	21	11.1	거주 기간	1년 미만	6	3.2
	기타	4	2.2		1~5년 미만	59	31.2
가족 형태	부부	8	4.2		5~10년 미만	47	24.9
	부부 와 아기 자녀	84	44.4		10년 이상	77	40.7
	부부 와 성인 자녀	46	24.3	총 표본개수	189		
노년 부부	20	10.6					
3대 가족	13	6.9					
기타	18	9.5					

Table 8. 텃밭이용행태

항목	공공				민·관파트너십				민간				
	토끼굴		무수굴		솔이텃밭		둔촌동		바람들이		개울 건너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텃밭이용기간	1년이하	5	19.2	10	31.3	20	64.5	14	37.8	4	12.9	8	25.0
	1년-2년미만	4	15.4	3	9.4	4	12.9	12	32.4	7	22.6	9	28.1
	2년-3년미만	4	15.4	7	21.9	1	3.2	4	10.8	2	6.5	5	15.6
	3년이상	13	50	12	37.5	4	12.9	4	10.8	12	38.7	7	21.9
	기타 (다중응답포함)	0	0	0	0	1	3.2	3	8.1	6	19.4	3	9.4
텃밭이용빈도	거의 매일	8	30.8	4	12.5	4	12.9	3	8.1	1	3.2	2	6.3
	일주일에 1회	10	38.5	15	46.9	19	61.3	23	62.2	21	67.7	14	43.8
	일주일에 2회	7	26.9	12	37.5	6	19.4	8	21.6	6	19.4	14	43.8
	월 1회	0	0	0	0	2	6.5	1	2.7	1	3.2	0	0
	기타 (다중응답포함)	1	3.8	1	3.1	0	0	2	5.4	2	6.5	2	6.3
텃밭이용수단	도보	12	46.2	3	9.4	7	22.6	15	40.5	2	6.5	0	0
	자전거	4	15.4	5	15.6	4	12.9	3	8.1	0	0	2	6.3
	자가차량	9	34.6	16	50.0	16	51.6	16	43.2	18	58.1	13	40.6
	버스	0	0	4	12.5	2	6.5	0	0	7	22.6	6	18.8
	기타 (다중응답포함)	1	3.8	4	12.5	2	6.5	3	8.1	4	12.9	11	34.3
텃밭에서류시간	30분이하	6	23.1	3	9.4	8	25.8	6	16.2	0	0	0	0
	30-1시간이내	12	46.2	13	40.6	11	35.5	16	43.2	0	0	2	6.3
	1-2시간이내	7	26.9	13	40.6	11	35	15	40.5	13	41.9	3	9.4
	2시간이상	1	3.8	2	6.3	1	5	0	0	16	51.6	23	71.9
	기타 (다중응답포함)	0	0	1	3.1	0	3.2	0	0	2	6.5	4	12.5

가. 공동체 형성 조사항목의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전체 27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921, 하부영역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역시 텃밭 내 공동체 활동은 0.866, 텃밭 내 공동체 의식은 0.872, 지역 내 공동체 형성은 0.78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솔이텃밭과 둔촌동 친환경텃밭은 민·관파트너십의 운영방식에서 다소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현장인 터뷰에서 텃밭 이용자들의 공동체 형성이 유사하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같은 그룹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문항목에 대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보면 아래 Table 9와 같고, 운영주체 중 하나라도 평균이 3.0이상인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였다.

나. 도시텃밭 운영주체별 공동체 형성 효과의 차이 검증

도시텃밭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이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항목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수가 0.6이상인 4개의 항목과 평균치가

Table 9. 텃밭 이용자 공동체 형성 설문항목 기술통계

설문항목	운영주체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설문항목	운영주체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텃밭 내 공동체 활동 (14)	퇴비화 활동	공공	58	2.05	1.083	.142	1.77	2.34	가족과 대화	공공	55	3.71	.567	.076	3.56	3.86
		민·관	67	1.97	.953	.116	1.74	2.20		민·관	68	3.68	.781	.095	3.49	3.87
		민간	63	3.94	1.030	.130	3.68	4.20		민간	61	3.61	.842	.108	3.39	3.82
		합계	188	2.65	1.365	.100	2.46	2.85		합계	184	3.66	.743	.055	3.55	3.77
	농약 미사용	공공	58	3.78	1.612	.212	3.35	4.20	텃밭 이용자간 대화	공공	58	3.19	.783	.103	2.98	3.40
		민·관	68	4.21	1.276	.155	3.90	4.51		민·관	68	3.31	.697	.084	3.14	3.48
		민간	63	4.52	1.189	.150	4.22	4.82		민간	63	4.08	.921	.116	3.85	4.31
		합계	189	4.18	1.387	.101	3.98	4.38		합계	189	3.53	.891	.065	3.40	3.66
	공동 퇴비 관리	공공	55	2.09	1.059	.143	1.80	2.38	텃밭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	공공	57	1.93	.904	.120	1.69	2.17
		민·관	66	2.44	.947	.117	2.21	2.67		민·관	68	2.28	.688	.083	2.11	2.45
		민간	62	3.39	1.164	.148	3.09	3.68		민간	62	2.87	1.123	.143	2.59	3.16
		합계	183	2.66	1.184	.088	2.48	2.83		합계	187	2.37	.988	.072	2.23	2.51
	공동 텃밭 동참	공공	56	2.11	1.107	.148	1.81	2.40	텃밭 활동 만족도	공공	57	3.84	.649	.086	3.67	4.01
		민·관	68	2.03	.897	.109	1.81	2.25		민·관	68	4.03	.690	.084	3.86	4.20
민간		61	2.30	1.085	.139	2.02	2.57	민간		62	4.35	.680	.086	4.18	4.53	
합계		185	2.14	1.028	.076	1.99	2.29	합계		187	4.08	.703	.051	3.98	4.18	
공동 텃밭 역할 분담	공공	58	2.05	1.067	.140	1.77	2.33	텃밭 이용자간 관계 만족 정도	공공	58	3.50	.800	.105	3.29	3.71	
	민·관	68	1.90	.849	.103	1.69	2.10		민·관	67	3.57	.908	.111	3.35	3.79	
	민간	61	2.25	1.135	.145	1.96	2.54		민간	63	4.16	.653	.082	3.99	4.32	
	합계	187	2.06	1.022	.075	1.91	2.21		합계	188	3.74	.846	.062	3.62	3.87	
개선 사항 평가	공공	57	2.60	1.015	.134	2.33	2.87	텃밭 이용자간 신뢰 형성	공공	57	3.42	.755	.100	3.22	3.62	
	민·관	68	2.60	.979	.119	2.37	2.84		민·관	68	3.54	.854	.104	3.34	3.75	
	민간	61	3.02	1.147	.147	2.72	3.31		민간	63	4.14	.737	.093	3.96	4.33	
	합계	186	2.74	1.061	.078	2.58	2.89		합계	188	3.71	.843	.061	3.59	3.83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 조직 활동	공공	58	2.03	1.042	.137	1.76	2.31	텃밭 이용자간 가치 공유	공공	56	3.13	.896	.120	2.89	3.36	
	민·관	68	2.24	.979	.119	2.00	2.47		민·관	68	3.31	.833	.101	3.11	3.51	
	민간	63	3.17	1.144	.144	2.89	3.46		민간	62	4.11	.812	.103	3.91	4.32	
	합계	189	2.49	1.161	.084	2.32	2.65		합계	186	3.52	.943	.069	3.39	3.66	
직거래 장터	공공	57	1.81	.990	.131	1.54	2.07	텃밭 이용자간 애착	공공	58	3.50	.922	.121	3.26	3.74	
	민·관	68	2.01	.782	.095	1.83	2.20		민·관	68	3.43	.935	.113	3.20	3.65	

설문 항목	운영 주체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설문 항목	운영 주체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참여	민간	62	2.18	.984	.125	1.93	2.43	공공의 목적과규범	민간	63	4.11	.785	.099	3.91	4.31
	합계	187	2.01	.925	.068	1.87	2.14		합계	189	3.68	.932	.068	3.54	3.81
봉사 활동동참	공공	56	1.88	.974	.130	1.61	2.14	지역 내 공동체 형성 (4)	공공	55	3.13	.924	.125	2.88	3.38
	민·관	68	1.88	.723	.088	1.71	2.06		민·관	68	3.32	.953	.116	3.09	3.55
	민간	63	2.08	.989	.125	1.83	2.33		민간	63	3.97	.782	.099	3.77	4.17
	합계	187	1.95	.896	.066	1.82	2.08		합계	186	3.48	.954	.070	3.35	3.62
	지역 내 공동체 형성 (4)	합계	187	1.95	.896	.066	1.82		2.08	지역 내 공동체 형성 (4)	합계	186	3.48	.954	.070
텃밭 시작 이후 정기적 활동 참여	공공	55	1.51	.635	.086	1.34	1.68	텃밭활동 시작후 거주지역 만족도	공공	57	3.37	.837	.111	3.15	3.59
	민·관	68	1.68	.584	.071	1.54	1.82		민·관	68	3.37	.771	.093	3.18	3.55
	민간	62	2.16	1.059	.134	1.89	2.43		민간	62	3.47	1.020	.130	3.21	3.73
	합계	185	1.79	.830	.061	1.67	1.91		합계	187	3.40	.877	.064	3.27	3.53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공공	58	2.22	1.170	.154	1.92	2.53	텃밭활동 시작후 거주지역 이웃과대화 만남	공공	57	3.21	1.114	.148	2.91	3.51
	민·관	68	2.21	.821	.100	2.01	2.40		민·관	68	2.99	.801	.097	2.79	3.18
	민간	62	3.60	1.047	.133	3.33	3.86		민간	63	3.24	1.043	.131	2.98	3.50
	합계	188	2.67	1.201	.088	2.50	2.84		합계	188	3.14	.988	.072	3.00	3.28
문화 행사 참여	공공	56	2.13	1.113	.149	1.83	2.42	텃밭활동 시작후 거주지역교육 및문화프로그램 참여	공공	55	2.22	1.083	.146	1.93	2.51
	민·관	67	2.31	.908	.111	2.09	2.53		민·관	68	2.37	.845	.102	2.16	2.57
	민간	63	3.25	1.077	.136	2.98	3.53		민간	63	2.86	1.045	.132	2.59	3.12
	합계	186	2.58	1.138	.083	2.41	2.74		합계	186	2.49	1.020	.075	2.34	2.64
정보 공유	공공	57	2.72	1.221	.162	2.40	3.04	텃밭활동 시작후 거주지역에서 봉사활동 동참정도	공공	57	2.16	1.162	.154	1.85	2.47
	민·관	67	2.57	1.003	.123	2.32	2.81		민·관	68	2.16	.725	.088	1.99	2.34
	민간	63	3.83	.925	.117	3.59	4.06		민간	63	2.60	1.100	.139	2.33	2.88
	합계	187	3.04	1.189	.087	2.87	3.21		합계	188	2.31	1.019	.074	2.16	2.46
정기 모임 참석	공공	58	1.91	1.081	.142	1.63	2.20	지역 내 공동체 형성 (4)	공공	57	3.37	.837	.111	3.15	3.59
	민·관	68	2.03	.772	.094	1.84	2.22		민·관	68	3.37	.771	.093	3.18	3.55
	민간	62	3.31	1.110	.141	3.02	3.59		민간	62	3.47	1.020	.130	3.21	3.73
	합계	188	2.41	1.169	.085	2.25	2.58		합계	187	3.40	.877	.064	3.27	3.53

너무 높거나 낮아서 검증을 하는 데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3개의 항목, 총 7개의 항목을 제외하였다.

위의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으로 선정된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공동체 활동과 의식이 운영주체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동과 의식 값에 대한 일원배치법 분산분석(one-way ANOVA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텃밭 내 공동체 활동 분산분석의 F값이 47.189로 높게 나오며, 텃밭 내 공동체 의식 분산분석의 F값이 27.651로 역시 높게 나와 유의수준 $p < 0.01$ 에서 운영주체별로 텃밭 내 공동체 활동과 의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텃밭 이용자의 지역 내 공동체 형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텃밭 내 공동체형성 일원배치법 분산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유의 확률	
텃밭 내공동체 활동	집단간	35.222	2	17.611	47.189	.000
	집단내	69.414	186	.373		
	Total	104.636	188			
텃밭 내공동체 의식	집단간	16.890	2	8.445	27.651	.000
	집단내	56.806	186	.305		
	Total	73.696	188			
지역 내 공동체 형성	집단간	2.512	2	1.256	2.315	.102
	집단내	100.402	185	.543		
	Total	102.914	187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주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정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공공과 민·관파트너십은 동일 그룹으로 묶이나 민간의 경우 상이한 그룹으로 판명되어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텃밭에서의 텃밭 내 공동체 활동이 공공 또는 민·관파트너십에서 운영하는 도시텃밭의 경우보다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 텃밭 내 공동체 활동 Scheffe 사후검정

운영주체별	N	Subset for alpha = 0.05	
		1	2
공공	58	2.1404	
민·관파트너십	68	2.1962	
민간	63		3.0850
Sig.		.877	1.000

Means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62.735.
 b. The group sizes are unequal. The harmonic mean of the group sizes is used. Type I error levels are not guaranteed.

Table 12. 텃밭 내 공동체 의식 Scheffe 사후검정

운영주체별	N	Subset for alpha = 0.05	
		1	2
공공	58	3.1484	
민·관파트너십	68	3.2871	
민간	63		3.8460
Sig.		.374	1.000

Means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62.735.
 b. The group sizes are unequal. The harmonic mean of the group sizes is used. Type I error levels are not guaranteed.

구체적으로 상이한 그룹으로 나타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부항목을 대상으로 Scheffe 사후검정법을 사용한 결과 아래 Table 13과 같이 텃밭 내 공동체 활동에서는 「퇴비화 활동」, 「공동퇴비관리」,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조직활동」, 「교육프로그램 참여」, 「정보공유」, 「정기모임 참석」로 10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텃밭 내 공동체 의식에서는 「텃밭 이용자 간의 대화」, 「텃밭 이용자 간의 온라인 대화」, 「텃밭 이용자 간의 관계 만족정도」, 「텃밭 이용자 간의 신뢰형성」, 「텃밭 이용자 간의 가치공유」, 「공동의 목적과 규범」으로 7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텃밭 내 공동체 의식에서는 대

부분의 항목에서 민간과 타 운영주체가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내 공동체 형성은 운영주체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항목별 값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를 보면 아직까지 도시텃밭이 지역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도시텃밭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의 장점과 한계점

본 절에서는 운영주체별 운영방식 차이와 이에 따른 텃밭 이용자의 공동체 형성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주체별 장점과 한계점을 고찰

Table 13. 텃밭 이용자 공동체형성 설문항목 일원배치법 분산분석

설문항목	구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값	유의 확률	설문항목	구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값	유의 확률		
텃밭 내 공동체 활동	퇴비화활동**	집단-간	155.995	2	77.998	74.947	.000	가족과대화	집단-간	.324	2	.162	.290	.748	
		집단-내	192.531	185	1.041				집단-내	100.785	181	.557			
		합계	348.527	187					합계	101.109	183				
	공동퇴비관리**	집단-간	53.799	2	26.899	24.028	.000	텃밭 이용자간대화**	집단-간	29.058	2	14.529	22.514	.000	
		집단-내	201.513	180	1.120				집단-내	120.032	186	.645			
		합계	255.311	182					합계	149.090	188				
	공동텃밭동참	집단-간	2.359	2	1.180	1.118	.329	텃밭 이용자간온라인대화	집단-간	27.162	2	13.581	16.187	.000	
		집단-내	191.987	182	1.055				집단-내	154.378	184	.839			
		합계	194.346	184					합계	181.540	186				
	개선사항평가	집단-간	7.109	2	3.555	3.237	.042	텃밭 이용자간관계만족**	집단-간	16.384	2	8.192	12.914	.000	
		집단-내	200.982	183	1.098				집단-내	117.360	185	.634			
		합계	208.091	185					합계	133.745	187				
	문제해결을위한 자치조직활동	집단-간	45.971	2	22.986	20.629	.000	텃밭 이용자간의 신뢰형성**	집단-간	18.433	2	9.216	14.894	.000	
		집단-내	207.246	186	1.114				집단-내	114.477	185	.619			
		합계	253.217	188					합계	132.910	187				
	적거래장터참여	집단-간	4.084	2	2.042	2.425	.091	텃밭 이용자간의 가치공유**	집단-간	33.565	2	16.782	23.471	.000	
		집단-내	154.911	184	.842				집단-내	130.849	183	.715			
		합계	158.995	186					합계	164.414	185				
	봉사활동동참	집단-간	1.678	2	.839	1.045	.354	공동의목적과 규범유무**	집단-간	23.524	2	11.762	14.852	.000	
		집단-내	147.787	184	.803				집단-내	144.928	183	.792			
		합계	149.465	186					합계	168.452	185				
	교육프로 프로그램참여**	집단-간	79.430	2	39.715	38.645	.000	지역 내 공동체 형성	텃밭활동시작한이후 주거환경만족도	집단-간	.412	2	.206	.266	.767
		집단-내	190.123	185	1.028					집단-내	142.507	184	.774		
		합계	269.553	187						합계	142.920	186			
	정보공유**	집단-간	59.702	2	29.851	27.052	.000	텃밭활동시작한이후 거주지역이웃과대화 만남정도	집단-간	2.517	2	1.258	1.294	.277	
		집단-내	203.036	184	1.103				집단-내	179.888	185	.972			
		합계	262.738	186					합계	182.404	187				
정기모임 참석**	집단-간	73.951	2	36.975	37.649	.000	텃밭활동시작한이후 거주지역에서봉사활동동참정도	집단-간	8.227	2	4.114	4.094	.018		
	집단-내	181.688	185	.982				집단-내	185.879	185	1.005				
	합계	255.638	187					합계	194.106	187					

**항목별 사후검정 시 상이하게 도출된 항목=설문항목의 민간 평균값이 3.0이상인 항목

하였다.

공공은 텃밭 접근성과 규모면에서 우수하고, 농장주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텃밭 이용자들은 본인의 텃밭만을 위주로 활동하며 텃밭 내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은 제한적이다. 이는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타 운영주체보다 평균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관파트너십은 텃밭 접근성과 규모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구정이 직·간접으로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활발히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텃밭을 통한 지역 내 일거리 창출, 텃밭 비이용자들을 위한 봉사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영자 간의 가치공유가 부족하며 민·관의 위탁용역 체결로 인해 민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어 민·관파트너십 본연의 수평적 관계 구축 의도와 달리 공공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데에 그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텃밭 내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어서 이용자들의 활동 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민간은 공동 작업을 통해 텃밭 내 필요한 시설(생태텃밭·교육·공동퇴비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성체 간의 목표 및 규범에 대한 공유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분양받은 개인텃밭만이 아닌 텃밭 전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텃밭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운영주체와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일부 텃밭 내 공동체 활동 항목 및 공동체 의식의 대부분 항목에서 민간이 다른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텃밭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텃밭 내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고 텃밭 비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현장인터뷰와 지역 내 공동체 형성 정도가 타 운영주체와 같은 그룹으로 묶인 것으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시텃밭의 운영주체가 다원화되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운영방식에 따라 도시텃밭 이용자들의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텃밭 내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공공과 민·관파트너십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민간 운영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민·관파트너십은 공공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공동체 형성에 더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 내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공공, 민·관파트너십, 민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각 항목별 값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각 운영방식의 장점은 활용하고 한계점은 보완하여 운영주체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첫째, 도시텃밭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텃밭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과 민·관파트너십의 텃밭 내 공동체 형성은 비슷하나 민간의 경우에만 상이하게 나타났다. 공공의 경우 텃밭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타 운영주체에 비해 긴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운영자 및 이용자 대상의 가치정향적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은 물론, 텃밭 이용자와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작동하도록 하는 텃밭지도자의 존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농장주가 텃밭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장주 대상의 지도자 양성 교육이 필요하며, 민·관파트너십에서는 텃밭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시 근무자의 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둘째, 도시텃밭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민·관파트너십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도시텃밭 운영주체는 초기에 민간과 공공 주도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이들이 드러내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민·관파트너십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민·관파트너십의 이용자들은 짧은 텃밭 이용기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체 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민·관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텃밭 이용자·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장치가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통계적으로 공공과 민·관파트너십이 공동체 형성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묶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민·관파트너십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도시텃밭과 더욱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는 관의 관료적·행정적·성공주의적 태도로 인해 민과 관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관에 대한 민의 종속성이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한다. 향후 민이 보다 자율적으로 상생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많은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도시텃밭이 지역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형성정도를 텃밭 내와 지역 내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지역 내 공동체 형성은 운영주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각 항목의 점수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인 분석 결과로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도시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계속적인 실증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민간의 경우 텃밭 내 공동체 형성은 타 운영주체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 내 공동체 형성 정도는 타 운영주체와 마찬가지로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예철(2012)이 최근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이라는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동된 행동과 목적 공유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민간은 아직 텃밭 내의 폐쇄적 공동체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텃밭이 지역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도시텃밭의 운영주체의 변화된 흐름을 파악하고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에 따른 공동체 형성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도시텃밭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그러나 도시텃밭 운영주체 대상지가 제한적이었고,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의 어떤 요인이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인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텃밭에서 철저하게 유기농법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

1. 강기남 외3인, 2007,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방안, 건설기술논문집, Vol.26(1), 167-76.
2. 김기현, 2003,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미향, 2011, 도시내 공지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 모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노희영, 2012,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태호, 2012, 도시텃밭의 운영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6. 박은지 외, 2009, 도시 내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가든 계획의 초기단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학위논문.
7. 박춘엽 외, 2002,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주체와 방식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Vol.24(4), 255-73.
8. 신예철, 2012,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역만들기공동체와 지역문화활동공동체의 역량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신성규 외, 2001, 주말농장의 공간 모델개발과 활성화 방안-서울시 근교를 중심으로-,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지, Vol.4(2), 11-20.
10. 소현정, 2008,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안철환, 2006, 농업과 삶을 살리는 도시의 텃밭 공동체, 환경과생명, Vol.50, 35-40.
12. 이은미, 정영기, 2010, 지역 공연장 운영주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술경영연구 Vol.17, 85-110.
13. 이은희, 김용아, 1998, 주말농장 이용 실태 분석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Vol.26(1), 83-95.
14. 이주열 외, 2011, 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Vol.40, 132-

주1) 강동구(2010), 송파구(2010), 도봉구(2011), 종로구(2011), 금천구(2011), 노원구(2011), 서대문구(2011), 은평구(2011), 마포구(2011), 영등포구(2012)

주2) 농림수산식품부(2010) 전국단위로 조사한 도시농업 현황에서는 개인, 공공, 민·관파트너십, 민간으로 운영주체를 구분하였다.

주3)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 김00 사무국장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4) Hillery(1955), 천현숙(2001), 김기현(2003), 지달님(2010), 이주열 외(2011) 등

주5) 텃밭보급소는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사회적 기업으로, 텃밭회원들의 상당수가 귀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귀농운동본부의

51

15. 임미정, 이은희, 2011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 텃밭의 이용자 인식 분석,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Vol.14(4), 237-43.
16. 임정언, 2009, 동탄 도시농업공원 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유찬주, 장동현, 2002,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 연구, 농촌사회, Vol.12(1), 63-88.
18. 장준호 외2인, 2010,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안양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Vol.35(2), 61-70.
19. 지달남, 2010, 공동주택단지지의 커뮤니티 의식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조정윤, 2009, 일본 공립문화시설의 환경변화와 운영제한:재단법인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Vol.15, 45-71.
21. 천현숙, 200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Vol.9(1), 143-72.
22. 허승수, 2006, 서울 근교 주말농장의 경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홍기원, 2004,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문화예술서비스의 효율성 측정 : 정부 및 비영리 조직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 황지옥, 2010,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텃밭의 도입과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클라인가르텐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2(4), 169-84.
25. 황정임 외, 2010, 도시농업 활동 유형화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Vol.21(4), 619-31.
26. Hillery, George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20, 111-123.
27. 농림수산식품부, 2010, 도시생활농업 모델정립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28.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http://agro.seoul.go.kr>. 검색일자 2011.10.03.
29. 송파구 솔이텃밭, 네이버 카페 랜드쉐어. <http://cafe.naver.com/landshare>. 검색일자 2013.11.23.
30. 강동구, 다음 카페 그리니티. <http://cafe.daum.net/greenity>. 검색일자 2013.11.23.
31. 텃밭보급소, 다음 카페 가드닝멘토. <http://cafe.daum.net/gardeningmentor>. 검색일자 2013.11.25.

접 수 일: (2014년 2월 11일)

수 정 일: (1차: 2014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7일)

■ 3인 익명 심사필